

# 1 |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확대

건강한 식재료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'식재료 공적조달 유통체계'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.



공공급식 참여 자치구를 총 10개로 확대

## 무엇이 달라졌나요?

**종 전 (6개구 참여)**

-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2개소, 통합 공공급식센터 1개소 운영
  - 강동구 공공급식센터('17. 5.29)
  - 금천구 공공급식센터('17. 11.20)
  - 동북4구 통합공공급식센터('17. 11.30)
  - ※ 동북4구(도봉, 성북, 노원, 강북)는 통합센터 운영



**변 경 (10개구 참여)**

- 2018년 4개 자치구 공공급식 센터 추가 운영
  - 상반기 2개소 운영
  - 하반기 2개소 운영
  - ※ 기존 6개구(강동, 금천, 동북4구) + 신규 4개구

## 자세히 알아보아요

-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  -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를 연계하여 '공공급식센터'를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직거래로 어린이집,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(※차후 관공서, 병원 등으로 확대 예정)
  -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 간 상생 효과 기대 가능
  - 현재 사업 시행 자치구는 강동구·금천구·도봉구·성북구·노원구·강북구이며, 2018년도에 4개 자치구(상반기 2, 하반기 2)에 추가 실시 예정 (공공급식 사업 시행 자치구 소재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복지시설 참여 가능)
- 어떤 지원을 받나요?
  - 공공급식센터 이용률에 따라 1식당 500원의 친환경 식재료를 차액지원(※1인당 월평균 1만원 지원)
- 공공급식 물품은 어떻게 공급되나요?
  - 안전성 검사를 거친 산지의 제철 농산물과 축산물, 지역가공품 등을 공급 전일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입고
  - 생산지의 시험성적서, 검사필증 확인 및 샘플링검사 실시 후 전체 공공급식시설에 당일 공급

문의 **2133-4146**(친환경급식과)